

청정바다 여름축제에 오세요

전남 휴가철 맞춰 가족단위 체험 다양화 행사

■ 전남도 여름축제

축제명	기간	장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23~25	여수 진남체육관
장흥경남진물축제	7.29~8.2	장흥 탐진강일원
목포해양문화축제	7.31~8.4	목포 광장
신안갯벌소금축제	8.1~8.3	신안 증도면 우천해변
무안연산업축제	8.6~8.9	무안 화진백련지
강진청자축제	8.8~8.16	강진 대구면 청자도

본격적인 무더위와 폴더들이 시작되면서 전남 서남해안 청정바다의 여름 축제가 본격적으로 막아 오른다. 특히 올 여름 축제는 휴가철에 맞춰 체험주로 준비해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수 국제 청소년축제가 열린다. 축제기간 중 제1회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가 초등부~대학부까지 열려 청소년들의 열띤 경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페달을 밟아 선풍기를 돌려보는 체험, 다크질 떠나보기 체험, 재활용품 핸드폰 고리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이어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장흥 탐진강 일원에서는 '물을 소재로 한 '청남진 물 축제'가 열린다.

다. 재래식 물 펌프와 물지개, 물동이 등 물을 이용한 옛 전통생활방식의 물 관련 체험과 아이스풀, 물 축구, 수중 줄다리기, 토마토 전쟁 등 흥미로운 체험거리도 펼쳐진다.

또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목포 광장에서는 모터보트, 바나나 보트, 수상스키, 영터리 배 경연대회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가 한자리에 모인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열린다.

신안군 증도면 우천해변 일원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신안 갯벌 소금축제'가 준비돼 있다.

재미나는 패밀리레이·게 줄다리기·펄싸움·해수 풀장·태평염전에서의 소금 기행들이·소금 짚질·소금공에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어 8월 6일부터 9일까지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물을 소재로 한 '청남진 물 축제'가 열리고, 같은 달 8일부터 16일

까지 강진 대구면 청자 도요지에서 '강진 청자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연 산업축제'에서는 연꽃과 연근을 이용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할 수 있고, '청자축제'에서는 도자기 전공 강사들과 함께 청자를 만들어보는 상설 물체체험, 청자 조각체험 등의 행사가 준비돼 있다.

명창한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남도의 청정갯벌과 바닷물은 계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피부에도 좋고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다"라며 "특히 남도 음식맛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이를 서남해안 남도축제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담양천 생태하천으로 바뀐다

환경정비·준설 등 6개 사업에 2천223억원 투입

담양천이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통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다.

담양군은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안에 따라 영산강 최상류인 담양지역에 하천환경 정비와 하도 준설, 자전거 도로 설치 등 6개 사업에 총 2천 223억원이 투입된다.

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담양읍 금월교에서 대전면과 광주시 경계인 용산교까지 15km 구간에 500억원을 투입,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55억원을 들여 퇴적토를 준설해 수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이 구간 천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

도 신설한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을 가로지르는 금월지구는 실개천과 징검여울 등을 설치해 '맨발 친수지구'로 조성하고 대나무죽제 현장이자 천연기념물 제 366호로 지정된 관방제립을 따라 흐르는 항교교 지역은 역사탐방

로와 강변 산책로, 이벤트 꽃밭 등 관광객들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된다.

대전면 용산지구는 전국 최초의 내륙 하천 습지보호지역을 특화시켜 '하천습지'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뭄과 홍수에 대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월산면 화방교 위쪽에 새 저수지를 축조하고 담양호 호수 둑을 2m 높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2012년까지 영산강 상류 담양천 정비사업 완료해 문화관광, 생태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임당=정훈기자 cjob17@



백련꽃도 관광객도 '활짝'

함평군 월야면 응월리의 '달맞이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편백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곳에 조성된 1만7천여㎡의 연꽃 단지에는 최근 백련과 흥련이 하나둘씩 꽂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의 별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 제공)



강진지역 여성 화합·친목 다져

여성단체 여성주간행사

발전기로 점화하는 그린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강진 여성단체의 밀거름이 되었던 초대회장 김영례(91) 여사가 공포페어를 수상했으며, 부자 가정인 김파숙(44)씨가 군수표창을 받았다.

식후 행사에서 'S라인 맘마미아'팀은 건강미 넘치는 율동미를 선보였고 다문화가족 의상쇼는 아름답고 다양한 동남아 복식문화의 정수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번 캠프는 지역본부 경영선진화 추진과제의 성공적 실행과



농어촌공 노사화합으로 상생

섬진강서 경영전략캠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가 노사화합에 앞장섰다.

캠프에 참가한 직원들은 섬진강 래프팅과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협동심을 기우고 학교사 북산스님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을 모시기겠다"고 말했다.

김종원 본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공직분위기 쇄신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성과창출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노사화합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직원들은 섬진강 래프팅과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협동심을 기우고 학교사 북산스님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종원 본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공직분위기 쇄신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진화 추진과제의 성공적 실행과

진화 추진과제의 성공적 실행과